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 <b>인천의꿈</b> <b>대한민국의미래</b>
		배포일자	2022년 12월 21일(수) 총 3매	
담당 부서	가족다문화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국인생활지원담당</li> <li>• 담당자</li> </ul>	최윤선 ☎440-2801 신현규 ☎440-2802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UCC공모전 수상작 16점 발표

- 대상작에 ‘화합과 공존의 꽃을 피우는 인천’ 선정 -
- 유튜브채널 통해 수상작 16점 볼 수 있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며, 외국인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한 U.C.C.(User Created Contents)제작 공모전 수상작 16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38일간 작품을 접수한 결과, 총 80편이 접수됐으며, 주제의 적합성·창의성·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, 최우수상 2편, 우수상 3편, 장려상 10편 총 16편이 선정됐다.

시상식은 오는 12월 27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수상팀에게는 소정의 상금(대상 300만원, 최우수상 각 200만원, 우수상 각 100만원, 장려상 각 60만원)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.

대상 수상작인 ‘화합과 공존의 꽃을 피우는 인천’은 꽃과 인천이 한 폭의 수채화로 그려지는 과정을 담은 라이브드로잉 영상으로 꾸며진 ‘외국인주민이 인천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’를 담았다.

인천시는 이번 U.C.C. 수상작 전부를 유튜브 채널(‘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’, <https://www.youtube.com/@iscfr>)에 올려 놓아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한명숙 시 가족다문화과장은 “이번 U.C.C.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분들과 상호 소통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”며 “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## 사진

## 관련사진



대상수상작 : 화합과 공존의 꽃을 피우는 인천